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11
Nov. 2017
Vol.5 No.11

- 추수감사주일
- 사역국팀장모임
- 주안에라이프
- 교육부 소식·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초대받은 청년들이 코람데오 청년들과 즐거운 저녁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한상’

■ 코람데오 '밥상을 부탁해'

코람데오(한어 청년부) “밥상을 부탁해” 모임이 지난 11월 19일(주일)오후 2시 30분 이방걸장로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청년부 성도들은 물론, 한국을 떠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게, 팽스기빙을 맞이하여 잠시나마 미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

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 채플에서 모인 40여명의 청년들은, 우선 서먹서먹함을 잊기 위해 서로를 소개하고 또 이들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등 빨리 친해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역시나 노력의 결과인지 금방 서로를 알아가고 또 많은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 이해령 권사님과 채플별 부장 권사님들(밸리 안희성 권사, LA 민에스터 권사,

플러튼 윤혜수 권사)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버너를 백야드 테이블에 준비해 주신 이방걸장로님의 센스에, 소고기 주물럭과 삼겹살 즉석구이가 시작되었는데 그 맛은 기자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중 최고였습니다. 그 외에도 맛있는 반찬과 잡채 그리고 커피와 음료등 정성을 다해 섬기는 권사님들의 손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4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종강식

배움의 기쁨, 섬김의 본 “졸업이 아쉬워...”



주안에라이프 2017년 가을학기 종강식이 100여분의 수강생들과 4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주변의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 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섬기는 주안에라이프는 이번에도 매우 알차고 유익한 과정을 개설하여 100여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종강식은 김경배 국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오병순 권사의 찬양인도, 그리고 박현동 목사의 말씀인도로 이어졌습니다. 박현동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김경배 국장은 “황혼을 맞이한 교우님들을 위해 주안예교회에서 교회의 설비와 학과 과정과 인력들을 동원하여 성심껏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란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발표회에서는 그 동안 갖고 뒀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었는데, 첼로와 색소폰 그리고 플룻이 함께 연주한 앙상블을 시작으로 색소폰, 하모니카, 키보드, 오토하프 그리고 기타연주와 함께 찬양과 우리 가곡 등을 연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라인댄스와 스트레칭, 박순희권사님의 바IBLE 교실 간증 그리고 편물 전시회가 있었고, 발표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컴퓨터, 고전무용, 바둑, 영어교실, 배드민턴과 스마트폰 강좌가 매우 재미있게 진행되었음을 소개 하였습니다.

특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20여명의 주방

팀(팀장 김현숙 권사, 안유은 권사)은 매주 화요일마다 장을 보는 등 식사준비를 하고,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150여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벌써 4년째 이 봉사를 해오고 있는 김현숙권사는 나의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피곤함도 모르고 늘 즐겁고 감사하다고 하며,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다고 겸손해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있을 제8기 봄학기에는 좀 더 폭넓은 학과목을 준비하고, 보다 충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우님들을 다시 초청할 것입니다. 다시 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할렐루야나잇

아이들 잔치, 부모님들이 함께해 더 행복

10월 31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주안예교회 각 채플에서 세상에서 할로윈이라며 사악한 풍습을 사악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시절에 반하는 할렐루야 나잇을 성황리에 치렀다. 해를 더해갈수록 마음이 더해지고 교회 어르신들의 힘까지 실어 성실하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인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 어디엔가 준비된 기부함에 큰 초코렛 봉지를 전하고 과자를 하나 가득 넣어놓았는데 2017년에는 아예 교구가 나서서 아이들의 흥겨운 잔치에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해 행사내내 함께하시며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에 사랑을 하나 가득 담아 전해주었다. 아주 작은 동참이라 겸손히 말씀하실지라도 자리를 빛내주신 어른들의 “성심성의”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니 올해 할렐루야나잇은 더욱 다양한 색깔이 연출되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으니 도장 광 광광, 친구들과 신나게 잘 놀면 잘 놀아서 광 광광, 노는게 신나서 밥을 안먹을까 얌전히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광광광, 도장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상품에 욕심을 내진 않을까 했는데 아이들은 역시 우리

보다 한수 위였다. 넉넉해진 도장으로 선물을 챙길수 있어 좋아하는 것보다 함께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같은 구역, 교구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신난 듯 했다. 종이 하나 하나 가득한 도장의 숫자는 중요치 않았다. <12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2018 사역국팀장 모임

참된 예배자, 교회를 움직이는 윤희유 처럼...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예배를 각 채플별로 화기애애하게 드린 후 2시 45분부터 엘에이 채플에서는 세채플의 모든 사역국팀장의 모임이 있었다. 돌아오는 2018년도 1월 부터 새롭게 사역을 맡게될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모임이었던 것이다.

이성우 전도사님의 박력있는 찬양인도로 시작을 알렸고 이어진 순서로 최혁 담임목사님께서는 우선 사역국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기름이라고 정의하시면서, 2018년 한해동안 주안예교회는 "예배자"를 모토로 모든 사역국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기를 권유하셨다.

또한 팀사역의 구성요소 3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첫째는 "비전"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까지 연결 되도록 방향을 잡으며, 그걸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이며, 둘째는, 목적을 추구해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세우는 매뉴얼 즉 "과정" 이고, 셋째는 "사람" 인데 함



께 일할 멤버를 선택하는 작업이 가장 신중해 야함을 강조하셨던 부분이다.

이렇듯 목사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사역국의 의미와 역할을 자세히 들은 임원들의, 각 사역국별로 매뉴얼 정하기와, 비전을 담은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어느때보다 진지함이 묻어남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서툰고 미약한 시작이라 지라도, 자신의 재능 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을 더욱 신뢰하며,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역국들로 채워져 갈 2018년의 주안예교회를 그려보며, 그곳에 머물러있을 아버지의 미소도 함께 그려본다.

| 오희경 기자 |

■ 세례성찬식

그리스도의 자녀 됨, 평생에 복 받게 하옵소서

지난 11월 1일(플러튼), 2일(LA), 3일(밸리) 저녁 예배시간에는 각 채플별로 성례식(세례, 성찬)이 있었습니다.

플러튼 채플에서는 권영자 성도님이 세례를, 그리고 이채은(이우석/경빈 집사)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LA채플에서는 민순기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밸리채플에서는 구하선(구조섭/나리 집사), 조운(조원용/김연주 집사), 승지울(승우철/박신정 성도), 최라나(최종호/이은희 집사)가 유아세례를, 그리고 김선영B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혁목사님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받는 복을 평생 받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세례식에 이어 성찬식을 집례한 후,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일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기도 드리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과, 또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이 한평생 함께하기를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 이광영 기자 |



■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감사, 감사, 그리고 또 감사! 주안에 교회에 감사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감사의 큰 절이 올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임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이기심에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자랑만 하고, 나 잘난 멋에 사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한 이스라엘처럼 주안에교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말하면서도, 내 공을 내세우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내 공덕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처럼 말이지요. 그렇지만 미스바 전투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승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은 그 기념비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더 받았습니까! 먼저는 여호와와 손입니다. 창조 능력, 보존 능력, 그리고 공급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적들에게 전쟁에서 빼앗긴 모든 땅과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회복시켜 주셨지요.

모함오드 감옥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던 다니엘이 그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모든 명예와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장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왕이 힘이 몇 배자 센 아모리 사람들과 화평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우상을 버린 여호사밧 왕도 그렇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와 회복이 찾

아옵니다. 그래서 주안에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왔고, 올해도 그 전통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더욱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몬테리파크에 큰 성전을 제공해주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셔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의 잔치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신이신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 주안에 형제, 자매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조성운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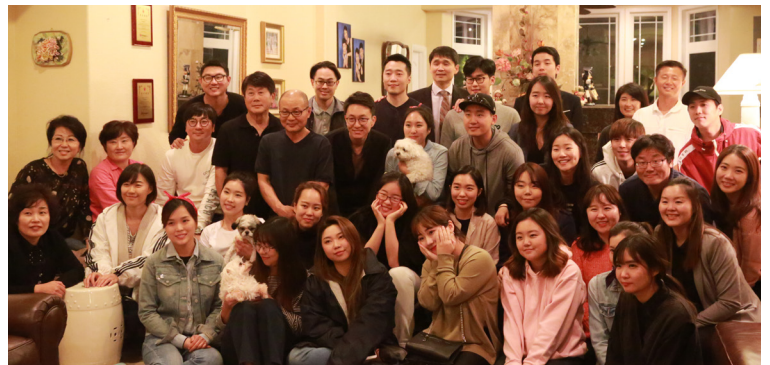
■ 코람데오 '밥상을 부탁해'

〈1면서 계속〉 55파운드나 준비한 고기가 거의 동이 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등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청년들은 실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 게임을 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는 미국땅에 와서 핑스기빙을 유익하게 보내고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은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저들이 하

나눔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혁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일과 목요일 코람데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한평생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통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모두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 탁구부 소식

몇 게임 치고 나면 금새 친구... 실력도 쑥쑥

주안에교회에는 탁구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직되거나, 계획하고 시작된 모임은 아니지만 그 어느 모임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부서입니다. 팀장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에 교육관에 모여 운동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와 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바쁜 일정과 먼 거리 등 여러 사정으로 새벽기도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토요일은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새벽기도가 끝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부서에 따라 봉사를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주보도 접고, 주일 식사당번이면 음식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 식당에 모여 친교를 하고, 남자들은 교육관으로 탁구채를 들고 모임니다.

임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팀장은 송용희 은퇴안수집사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더니 구력으로 치면 거의 60년입니다. 송 집사님은 탁구가 좋아 집에도 탁구대가 있고 아내 되시는 송정님 권사님과 종종 탁구를 치십니다. “탁구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친교에도 좋고, 온 몸을 움직이니 땀도 많이 흘리고, 또 탁구를 함께 치다보면 가까운 친구가 되어 친



교에도 최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쉽게 즐길 수가 있구요.” 탁구 애찬가이신 송집사님의 권유로 지금은 10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탁구를 즐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토요일 하루만으로는 아쉬워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뒤에 다시 모여 두세 시간 또 탁구를 칩니다.

처음 탁구를 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회원들의 실력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함께 치다보니 지금은 실력이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 시소게임이 되어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됩니다. “저는 테니스를 수십 년을 쳤습니다. 탁구는 거의 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집사님의

권유로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두세 시간을 치고 나면 온 몸이 땀으로 목욕을 하는데 기분이 상쾌하고 운동이 많이 됩니다. 탁구를 치기 시작한 이후로는 잔병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테니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탁구부의 가장 연장자이신 김응상 장로님도 탁구 애찬론을 펴니다. 이 분들이 탁구를 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함께 나누는 동안 아주 좋은 교우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 봉사로 더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에도 함께 힘을 실고 있습니다. 탁구부는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으니 운동과 친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아침 교육부로 오면 됩니다.

| 조성운 기자 |

■ 중보기도국(플러튼)

작지만 강한 기도의 용사들 영적전쟁의 선봉

주안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최혁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새벽에 일어나 몇 시간씩 기도하시며 교회와 목사님의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안에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목사님처럼 기도하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시간과 기도팀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기도를 하는 팀이 플러튼채플에 있습니다. 바로 1부 기도팀입니다. 현재 1부 기도팀의 고정 멤버는 팀장이신 민창식 안수집사님과 이 에스터 권사님, 그리고 작년 팀장이셨던 권상복 안수집사님과 부인이신 권현숙 권사님의 네 분이십니다. 이 분들은 주안에교회에 초창기 멤버이시고, 주안에교회에 오시면서 바로 기도국에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기도로 주안에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누구보다도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주안에 교회의 구석구석을 기도로 전하는 기도의 전령사들입니다.

교회의 균열된 틈새, 교인들의 아픈 상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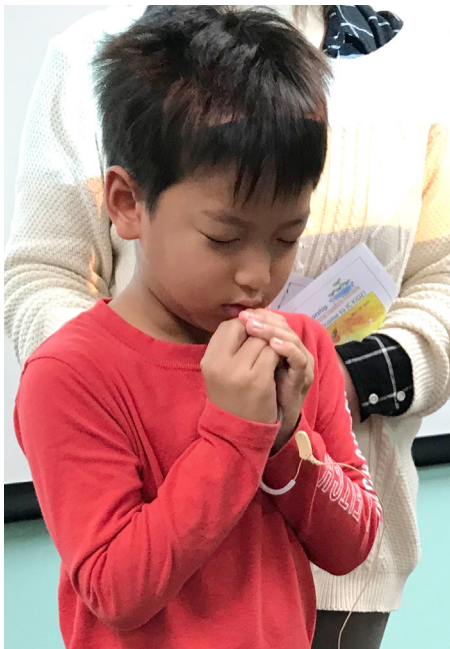


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 교우들의 기도요청들을 조용히, 그렇지만 크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들은 1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의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모임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인도로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고르고 기도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중보기도를 위해 본인들의 회개기도를 합니다. 회개기도로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는 바로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위해 호명을 하며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도 모두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을 위하여서는 목이 터질 정도로 뻑세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안에교회에 산적한 문제들,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아가서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과 조국,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은 명실상부한 주안에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한 주안에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주안에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은 이들의 기도의 검에 힘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 조성운 기자 |



따뜻한 나눔, 가득한 미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 재4기 주안에빛 간증(벨리)

내 삶을 되돌아 보게한 시간들

어느덧 12주라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차라리 중도에 포기하려면 하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순간 “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안에 말씀 먼저하고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이 궁금하고 많은 질문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던 중에 주안에 빛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배움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주말날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반쪽짜리 신앙의 삶과 거저된 삶이었습니다. 겉포장으로는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되돌아보면 권견과 제 위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제 가족과 형제들에게 특히나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잘못들이 제 눈과 머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말씀의 배움을 시작하게 됩을 감사드립니다. 제 곁에서 항상 함께하여 용기를 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강은숙 집사(벨리)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와 닿아

주안에빛을 듣기 전 저는 성경이 어렵고 먼 이야기 같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CY 에서 스몰그룹 티쳐로 아이들과 얘기할 때, 들어줄 때, 성경구절을 못외우고, 스토리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막막하고 ‘아, 왜 나는 기억이 안날까?’라 생각하면서 ‘성경공부 좀 해야겠다’ 라고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안에빛을 듣고 성경을 더 배우면 그래서 지식이 더 쌓이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주안에빛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안에빛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성경은 지식이 아니구나’ 였습니다. 역사책처럼 지루하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킵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성경을 배우기보다는 이해하기 시작했고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로, 다른 장들로, 다른 구절로 생각하고 외우고 배우기에만 신경 썼었는데, 주안에빛을 들으면서 성경은 하나고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역사책으로 지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큐티를 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끝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시간에도 심심하고 지루해서 스킵한 성경구절이 나올 때는 ‘아, 또 역사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안에빛을 듣고 나선 주안에빛에서 배운 것이 나오면 괜히 신나고 더 이해가 잘돼서 너무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영어로만 성경을 읽어서 한글 성경은 어렵고 아직 힘든데 한번 주안에빛을 들었으니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천천히 다시 읽고 놓친 부분들도 꼭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의연 성도(벨리)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저는 주안에빛을 듣게 되면서 조금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중에 말씀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게을러서 매일 읽지 못하고 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주안에빛을 듣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말씀을 매일 읽지 못했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주어진 교재도 굉장히 굵게만 보였고 성경까지 읽어야 하는 점이 조금 벅했습니다. 그러나 주안에빛을 12주 동안 들으면서 화요일 저녁,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사역자님들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트로, 어떤 분은 줄거리로, 어떤 분은 짧은 영상으로, 매주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

다. 제가 배우면서 매주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주가 몇 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왕에 대해서 배울 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울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를 통해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배웠는데 너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제 자신의 감정에 예민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무뎌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도 제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실수 중 1 단계였던 자기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를 읽었을 때 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3단계는 불필요도 없을 정도로 첫 번째부터 제 자신을 찾았을 때 강의를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 회개에 대해 얘기해 주셨을 때 '슈브 슈브' 즉, 돌아가다 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도 회개할 거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나는대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에 남는 강의는 분열왕국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하신 왕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보이던 왕들이 남긴 업적을 짧게나마 훑어봤습니다. 제가 왕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인데, 얼마나 자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제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에 대해 배우면서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제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안에빛은 끝났지만 다시 한 번 교재를 보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이정현 성도(벨리)

■ 제12기 주안에삶 간증

3년반 믿음과 삶 성장 여정

이 소감문을 쓰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안에삶 1권을 시작했을 때와 주 안에삶 3권을 마친 지금 이 시점의 내 신앙의 성장이다. 3년반 정도 되는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오셨던 것 같다.



김민재 성도(LA)

처음 1권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서부터였다. 하나님이란 분이 더 궁금했기도 했고, 또 공부와 숙제, 또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나에게 숨길 구멍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1권 훈련을 하던 중 나는 아주 큰 문제가 찾아왔고 훈련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백팔십도 바뀌게 되었다. 단순히 지식을 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나의 첫마음과는 달리 정말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나눔을 할 때는 그 대화 속에서 힐링과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다.

주 안에삶 2권을 하면서는 신앙에서 공동체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던 것 같다. 1권을 끝내고 2권을 시작하기까지 나는 신앙생활은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 한 굳이 청년부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권을 하면서 나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옛사람을 이기는 법' 이과는 지금의 나에게도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주제이다.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기도를 잘하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이 순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20년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과 가치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과를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주 튀어나오는 나의 옛모습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되돌아보면 주 안에삶에서 다루는 제목들은 어쩌면 정말 베이직 중에서도 베이직한 것 같다. 하지만 베이직하기에 더 중요한것 같다. 특히 요즘 시대는 기복주의와 혼합주의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항상 내 자신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여러가지 핑계로 3권을 하기를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3권을 끝마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2권과 3권이 거의 1~2년이란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나의 신앙은 많이 때론있었던 것 같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여러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3권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내 삶을 비추어보니 허점투성이었던 것을 발견했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바쁜시기에 훈련을 하기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사랑고백의 시간이었다. 훈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훈련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어떤날은 하나님께 빠져서 책을 펴기도 싫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 이렇게 답이 없는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안아주셨다. 이제는 이 훈련들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에 힘써야겠다.

내 삶에 하나님 얘기 많아져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지난 주 안에삶 1,2,3권 소감문들과 풍요로운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았다.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였다. 주 안에삶은 삶에서 말씀과 신앙생활을 적용하며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피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두어서일 것이다. 나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교육이 열릴 때마다 이것만큼은 꼭 끝내야지라는 각오로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따로 할당해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매주마다 6주차라는 시간이 짧게도 느껴졌었지만, 돌아켜보면 총 1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생각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오준영 성도 (LA)

먼저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초반에 썼던 소감문에 비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감사, 솔직한 고백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을 느꼈다. 다시 보니 좀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았지만, 나를 나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솔직한 시간을 주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내 원래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들이 많이 보여졌었다. 여러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감정과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안좋은 일도 나에게 큰 성장과 성숙을 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하였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 끝은 또 하나님의 긍휼과 큰 깨달음이어서 더욱 얻어낸게 많은 시간이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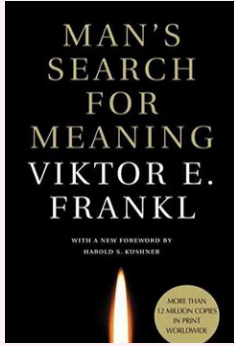
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시간들도 많이 변화되었다. 처음엔 지식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대하였고, 뭔가 딱딱하고 잘 읽히지 않은 느낌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전보다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하나님도 그렇게 쓰신 것 같았고, 현실적인 것으로 혹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표현이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일 것이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다시 읽어보고 반복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잡게 되었고, 그게 조금씩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았다.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느낀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시작하는게 그 변화의 시작이고 동기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교육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작은 시간들이 진실되고 진정성있게 드릴 때, 그것은 작고 보잘 것없었지만 그 끝과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은 더욱 클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작은 것들을 먼저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다른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간과하는 부분일지라도 제일 기본이 중요하듯이 작은 노력과 실천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식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걸어가고 싶다.

■ 추천도서
[빅터 프랭클의 인간탐구]

인생의 의미와 선택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사색의 계절, 가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3년간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극한 체험을 하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관찰하여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보았을까? 아무리 개 같은 환경 아래에서라도 모든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래에서라도 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성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될 것인가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 즉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이러한 운명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또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인생의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삶의 의미를 둔다. 우리는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Why?)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How?) 하는 것은 저절로 답을 얻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많은 감동과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아쉬운 점은 인간은 창조주를 생각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내는 구도자임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다.

| 송용희 안수집사 |

■ 칼럼

말씀과 삶

말씀이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일반적인 착각이 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나도 그 수준의 성도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 하니까 나도 목사님과 같은 수준, 내지는 그 말씀과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피 땀이 싸움과 갈등이 있는지, 말씀 따라 자기의 지(知) 정(情) 의(義)를 처서 복종해 왔던 성도는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싸움 없이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 하기가 부끄러울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정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에 내포된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 순간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아들이 어렸을 때 UCLA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세 자녀들과 한국어 홈스쿨을 했었다. 주말이면 4명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날도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는 길에 길가에 걸인이 자동차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고 돈을 전해 주었더니 뒤에 앉아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는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안된대. 술과 마약으로 돈을 써 버리니까."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이 "우리 엄마는 언제나 주어야 한다는데." 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엄마 의견을 말하라고 눈으로 독촉을 한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저 사람들 중에 정말 배고픈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목이 마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저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교회의 직분자의 아이들도 의견이 각각 다른 것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 하느냐를 보고 배우기에 같은 말씀을 갖고도 각각 다른 해석으로 아이들이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우리의 실제의 삶이 각각 다르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이가 영국 유학을 끝나고 떠나면서 모든 동전을 모아 길가의 걸인에게 전하면서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는 걸인도 우정을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가장 가난했을 유학 시절의 아들이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는 모습이였다.

| 이예스더 기자 |

교우비지니스



Deborah Hwang
Energy Consultant

Head Office
1367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06

OC Branch
13417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Cell. 949. 874. 8825
Tel. 844. 264. 7336
Fax. 213. 341. 0144

deborah@amgreensolutions.com
www.amgreensolutions.com

■ 김제니아권사(밸리)

손끝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Jenny Kim 권사님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힐링캠프부터 말씀드리자면 힐링캠프의 모든 리프레쉬먼트를 빠지지 않고 항상 섬기고 계십니다. 20여가지 야채와 과일을 LA 새벽도매시장등에 직접 가서 고르고 또 고르며 정성을 다해 거의 일주일 동안 장을 보십니다. 그리고 힐링캠프에 올라오신 seekers 들을 섬기기 위해 10여명의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일 등 간식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들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힐링캠프에 다녀오신 분들은 온갖 과일로 장식하여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탄스런 '천지창조' 작품(?)을 누구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는 추수감사예배 장식을 위해 장을 보다가 너무 많은 물건을 싣다 보니 그만 차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새가족부에 과일봉사, 주안에 만남 행사 때 과일봉사 그리고 봉사국에서도 출선하여 함께 봉사하고 계시며, 특히 교회에 중요한 손님이나 감사 목사님이 오시면 음식을 대접하는 의전을 맡아서 하시는데 권사님은 교회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서는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에도 교회의 부담이 있으면 없던 힘도 나고 그 기쁨에 달려갈 용기가 난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어 순간순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을 묻자, 권사님께서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이 일을 감당하심은 물론,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도매시장은 물론, 때로는 다섯 군데 이상 마켓을 순례하는 권사님의 정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장호 집사(플러튼)

눈에 안 띄는 곳은 일 도맡아 해결

안장호 안수집사님은 주안예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숨은 일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봉사하십니다. 처음 주안예교회에 와서는 부인되시는 이경희 권사님과 함께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년여 전에 봉사부에서 남자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부역으로 달려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역에서 남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나르고, 설거지 하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도 하고, 요리하시는 여자분들 심부름 내지는 뒤치다꺼리처럼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에 안장호 집사님은 그길로 앞치마 두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일 년 여를 아무 말 없이, 아무 탈(?)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집사님은 음식 준비물부터 준비하십니다. 식품회사의 이사님으로 일하시는 관계로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원가에, 그것도 교회까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할 때에



도 직접 부엌까지 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음식 준비하는 일에 도우미로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은 물론, 식사를 하는 테이블마다 커피포트를 들고 직접 돌려 교우들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거대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올까하는 십 만 불짜리 미소까지 함께 대접합니다.

식사 뒤의 설거지는 안 집사님이 독점하십니다. 누군가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해도 절대로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일도 물론 안 집사님의 몫이구요. 아참! 부역에서 필요한 개스통을 채워오는 것도 안 집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큰 회사의 이사님이자, 판매 팀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중에 교회에 들러 개스통을 채우십니다. 가까이서 할 수도 있는데 몇 불이 싸다며 조금이라도싼 곳을 찾아 멀리까지 가서 무거운 개스통 대여섯 개를 채우고 그것을 교회 부엌까지 날라 옵니다.

안장호 안수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한다는 말에 만일 자기가 교회 신문에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사진을 찍으려하자 한사코 거절해서 결국 사진은 뒤에서 몰래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집사님같은 분들이 주안에 교회에는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의 숨은 봉사가 우리 주안에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조성운 기자 |

(고)김은옥 권사님을 생각하며...

김은옥 권사님께서서는 1954년 8월 8일 출생하셔서 지난 10월 29일 소천하실 때까지 그리 긴 생애를 살지는 못하셨지만, 주님께 삶을 바치신 분으로 세상에서는 간호사로서 열정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평생직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밸리채플을 15년동안 섬기시면서, 이복희 권사님과 함께 주안예교회 의료국을 시작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에 대장암 4기로 진단 받으시고 수 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UCLA 병원에 근무 하시고 또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의료국을 지키시며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밸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곳 주안예교회를 사모하시어 많이 불편하신 몸으로도 주일예배에 꼭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신 (고)김은옥 권사님을 추모하며, 이제는 낙원에서 안식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권사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돌봄"의 믿음을 따라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남편이신 김영철 안수집사님과 큰딸 Lina Kim 그리고 작은딸 Jessie Kim, 손자 Liam J Zurita, 그리고 사위가 유족으로 남았습니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신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박창신 기자)

초콜릿 케익

재료

1. 크러스트: 24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 ¼ 컵 설탕, 버터 6 큰술(3 온스)
2. 속케익: ½ 컵 우유, 초콜릿 조각 2컵(Semi or bittersweet), 에스프레소 파우더 1 작은술(인스턴트 커피 대용 가능), 크림치즈 24 온스(3 페키지), 설탕 1컵, 달걀 4(큰것으로 실온상태), 바닐라익스트랙트(Vanilla extract) 1 작은술, 다목적 밀가루 2 큰술, 둥근 케익구이 팬

조리법

1. 오븐을 375도로 예열한다.
2.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와 설탕 ¼ 컵을 넣고 가늘게 부순다(Food processor 나 sandwich bag 을 사용하면 쉽게 부실 수 있다)
3. 2에 녹은 버터 6 큰술을 넣고 잘 섞어 촉촉해지면 수저를 사용 반죽을 케익팬 바닥과 옆으로 눌러 크러스트를 만든다.
4. 3의 크러스트를 15분 동안 오븐에 구워 꺼내 놓고 오븐을 350도로



준다.

5. 우유와 초콜릿 조각을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 녹인 뒤 에스프레소 파우더를 섞어 놓는다.
6. 크림치즈와 설탕을 큰 그릇에 넣어 부드럽게 잘 섞이도록 저어 놓는다.
7. 6에 달걀, 바닐라, 밀가루 순서로 조금씩 넣으면서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8. 위의 5와 7을 잘 섞어 구워진 크러스트위에 부어 350도로 예열된 오븐에 45-50분 동안 굽는다(케익의 중간온도가 175도).
9. 오븐을 끄고 문이 열린 오븐 안에서 1시간 동안 식힌 다음 오븐에서 꺼내 실온에서 식혀 초콜릿 조각, 딸기 등으로 모양있게 장식하여 상에 올릴 때까지 냉장고에 보관한다.

<2면서 계속>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보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친구가 도장이 모자라 갖지 못한 선물, 심지어 자기가 모두 선물을 차지하면 친구를 상품이 모자랄까봐 20개도 더 남은 도장찍힌 종이를 그냥 선물가방에 접어 넣어 버린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란 취지에 맞추어 가족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시간과 장비를 준비하신 김다슬 집사님의 사진부스를 비롯하여 여러 게임부스와 친구들과 함께 뛰고 놀

며 지낸 3시간이 봄바람처럼 지나갔고 이 행사를 위해 주말도 포기하며 몇날 며칠을 동참했던 중고등부 학생들은 뒷마무리까지 빛의 속도로 움직여 주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아주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자 그 마음은 또 그 옆으로 아래로 전해졌다. 어릴 적 부르던 노래처럼 사랑은 육신내어 주어 답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동전 한뼉, 움켜잡으면 없 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지켜본 어른들은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뻔뻔해졌던 마음을 붉는 녹이듯 녹이며 가능한 오랫동안 그리고 최대한 멀리 이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감을 전하자 다짐했다. 미움이나 원망, 분노같은 감정은 다 털어버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뱉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하나님께 청해보자 생각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태,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